이 세상을 한숨에 꿰어 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되라

☞ 21면에서 계속

한 내 마음의 촛불, 티끌만도 못한,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묘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묘한지, 슬프다고 눈물이 나고 즐겁다고 웃고, 또 사랑한다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찰나찰나 천차만별로 행을 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지금 연결 연결 해서 옮겨 가고 있는데, 옮겨 돌고 있는 거죠? 옮겨서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그 밝은 마음에 의해서 옮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이 동시에 삼합으로서 한데 합쳐지면서 옮겨 가고 있는 겁니다. 옮겨서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품이 이러냐 저러냐. 변덕스러우냐 조용하냐, 나쁘냐 좋으냐 하는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일차원이냐 이차원이냐 삼차원이냐 하는 것도 자기 성품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라. 모른다 하는 것도 성품이요, 안다 하는 것도 성품이라. 성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고,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고,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듯이, 몸이 없으면 몽땅 다 없듯이 그것이 다, 움죽거리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조성하고, 성품은 작용을 조성하는 것이란 얘깁니다.

왜 내가 인간의 이 혹성, 이 자체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지수화풍으로 완벽하게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나도 공했고 이 허공도 다 공했어! 그랬는데 생명이 없는 송장이 어떻게 가고 오고 움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이 어떻게 움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이렇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조차도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품이, 어떠한 걸로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성품 자체, 마음 자체를 그냥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 이러는 거나 똑같죠. 그러나 성품은 그렇질 않습니다. 성품은 지혜가 넓은 성품이 있고, 지혜가 낮은 성품이 있고 성품도 천차만별로 돼 있으니까요.

성품이 천차만별로 돼 있어서 자기 성품으로 인해서 자기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자기라는 것도 몽땅 공했다는 것을 알고 봤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땅 다 아주 보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색색 가지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뭐가 되죠? 접때 말했죠? 열매가 맺는다고요. 눈 감으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그 어지러운 것이 다 떨어져.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 살림살이하는 데 지금 근본 목적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일체를 남의 탓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주 감아 버려!

"나 하나만 죽으면" 하는 소리는 내가 살아서 죽을 줄 알아야지, 죽어서 송장이 돼 가지고 죽는다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위 열반이 있고 무위 열반이 있어. 그런데 무위 열반이 될 수 있어야 유위 열반으로 돌아올 줄 알지, 무위 열반을 모르면 유위 열반을 몰라, 진짜! 그래서 무위 열반과 유위 열반이 둘이 아니어야 진짜 열반인 거라.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때렸는데도 탓을 하지 말랍니까?" 이럽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지,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어?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녹음 안됨) 이 주인공 그 성품에서 나온 거, 공한 성품에서 나온 거 공한 성품에다 놔라 이거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 자기가 시자 노릇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시자가 된다면 죽는 것이라. 자기 몸뚱이는 아예 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예 눈 감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역력하고 참, 외착이 없이 소소영영하게 우리 살림살이를 똑바로 여실히 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여실히, 똑똑히, 역력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가?

참자기로서 바로 그 성품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요렇게 시계추가 돌아가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 시계를 세 시라고 고정되게 해 놓을 수가 있나, 두 시라고 해 놓을 수가 있나, 한 시라고 해 놓을 수가 있나. 어떤 시간을 제일이라고 할까요?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할 때를 오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것은 오후입니다. 이 지금 오전 오후를 단계라고 볼 때에, 우리가 오전에 잘하면 오후는 걱정할 것도 없죠. 미래를 왜 걱정해요?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이 또 진화돼서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온 것들 때문에 지금 오전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전에 모두 몽땅 놓지 않는다면 오후에도 여전히 무겁게 짊어지고 아마 끊임없이 돌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촛불이지만 언제나, 촛불을 켜든지 생활을 하든지, 만남이 있든지 사랑을 하든지, 생활을 하는 데에 회사에 나가든지, 모든 것을 하는 거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깨는 거나 또 만남이나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돌릴 때 그때에 진짜,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한 보림이에요. 또 만나고 난 뒤에 잘 보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이 우주 전 세계를, 아니 우주 전 세계,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닿기만 하면 몽탕몽탕 타 버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촛불 하나가 뭐를 태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내 조그마한 마음 하나가 자석이라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 자석에 붙어서 녹아 버린다고요. 붙기만 하면 녹아! 그게 한 덩어리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어긋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이 마음을, 예전 선종들의 그 관법을, 또는 깨친 그 도리를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면 도대체 말하고 행하고 뜻이 전부 어긋나 버려. 내가 이거를 한다 했어도 그놈의 게 안 돼 버려. 다른 데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도 또 달리 돌아가.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이러니까 말과 행과 뜻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을 밝히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구법이니 청법이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잘했지만, 그 방편, 그 활구를 우리는 몰라서도 아니되지마는 나를 깨쳐 가지고는 그러한 책을 봐도 책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책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깨치지 않고 책을 보면 책이 나를 보고 내가 책을 보기 때문에 그 글씨 쓴 백지를 아는 도리가 없어. 글을 보고 해석을 하고 야단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백지를 모르면 바로 내 백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분들이 하시고 내려오신 그 문제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나만이 내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분이 동시에 하납니다. 하난데 너무 수효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을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건 무(無)라! 그렇듯이 우리 생활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날 저녁에 예불을 모시고 저녁때에 촛불재를 하고, 촛불재를 하면 그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는 거를 아주 실감 나게 실천에 옮기면서, 내 모두를 불태우면서 나까지도 거기 더불어 같이 태우는 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 촛불 자체는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바로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력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모르고 화두를 들고 10년 20년 돈다거나, 10년 20년 좌선을 하고 앉았다가 해제가 되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제 해제는 없는 것입니다. 선방에 가는 분들이라면 해제가 없고 결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도리를 알아서 어느 날짜를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율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은 거지, 지금 선 도리를, 선을 하는 사람은 일일이 따지는 그것을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질서는 지키되 바로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일체를 놓고 들어가야 되거든.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서는 것만이 선이 아니야. 눕는 것만도 선이 아니야. 눕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다 참선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먹고 행하고 사랑하고, 어느 거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다 참선이라.

이거를 누가 하는가. 한군데서 나와서 한군데로 들고, 한군데서 나와서 한군데로 들고, 쳇바퀴 돌듯 만법의 이치가 이러한데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에 앉아서만 참선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이건 죽은 참선이야. 우리가 생동력 있고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고 이렇게, 정말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한숨에 꿰어 들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공부를 하시려면 모든 걸, 줄창 말씀드렸듯이 사대가 공한 자기, 이 세상이 공한, 그 둘이 아닌 나와 더불어 세상은 공했어. '나,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들이고 내는데 그 들이고 내는 놈이 바로 공한 내 주인공이로구나.' 하고 믿고 물러서지 말고 거기에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내가 스스로 갈 때는 스스로 잘 가지고, 올바르게 스스로 행해지고, 올바르게 생각해지고, 올바르게 눈이 떠지고, 올바르게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정이며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풍족하면 죽을 먹고도 허허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쓸 때에 여여하게 내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짊어지고 다닙니까, 무겁게? 공항에 가면 짐을 놓으면 슬슬슬 돌아가서 내가 내 거는 집어서 들고 나오게끔 되는 그러한 것처럼 배고플 때는 각설이가 밥 먹듯이 내가 먹고 싶을 때는 꺼내 먹고, 안 쓸 때는 거기 놓고, 또 쓸 때는 꺼내 쓰고 이러면 됐지, 왜 짊어지고 다녀요? 모두가, 이 세상천지 모두가 다 내 것이라면 말입니다.

세상천지가 모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구태여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살 수 없고 속상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에 만방에 꽃이 핀 거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촛불재를 하더라도 그 촛불 하나가 우주 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를 태울 수도 있다는 이런 관념 아래서 고정되게 착을 두지 않으면서…,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했다면 얼른 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생각을 했어도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뒷발자취가 없듯이, 앞으로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떼 놓지 않았으니까 또 발자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 바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두가 한마음 촛불 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2월 6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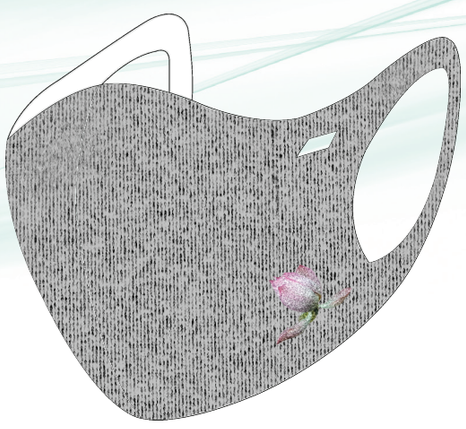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구태여 내가
가난하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것과 같아요.
화창한 날씨에 만방에 꽃이 핀 것 같고요.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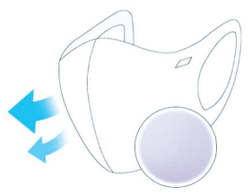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